

올 농수산물 수출 70억 달러...전년비 6% 증가

수출 감소 속 나홀로 상승
엔고 영향·중국 시장 개척 요인
aT, 연말까지 막바지 총력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농수산물 해외 수출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4일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여인홍)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70억달러를 기록했다.

10월 말 기준, 국가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한 4051억달러였고, 11월 3주차 농림수산물 잠정 수출실적은 7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2% 신장한 수치다.

올해 초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농수산물 수출은 5월 이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며 10월 들어 연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도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은 엔고 현상, 기능성 식품 수출 호조 등으로 오랜 침체에서 벗어



aT는 지난 16~18일 열린 2016 베이징식품박람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aT 제공)

나 8월 이후 회복·반등세에 있으며, 중국은 내륙 시장 및 온라인 판로 개척 등 새로운 유통망 구축에 힘입어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해 가고 있다.

특히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

의 경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가공식품 수출 증가율을 앞서기도 했다.

올해 초 수출이 심상치 않아 지난 2월부터 수출비상점검 T/F를 운영했던 aT는 브렉시트, 사드배치, 한진해운사태 등 수

출관련 주요 이슈 발생시마다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등의 실질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Wechat) 내에 한국 농식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중국 바이어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등 중국 식품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K-Food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새롭게 시도한 사업도 성공적이었다. 생우유, 막걸리 등 냉장운송이 필요한 수출 상품 1400여톤은 5월부터 시작된 중국 지역 '콜드체인' 사업을 통해 내륙 주요 도시까지 신선도를 유지한 채 배송됐다.

aT 백진석 수출전략처장은 "지금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남은 기간 aT의 수출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어와 수출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실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중국 등 주력 시장 집중 마케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력 빅데이터로 새 수익 모델 창출

한전 '인공지능 전력 플랫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발전, 송배전 등 전력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 데이터 등을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전력R&D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R&D 통합 플랫폼(Herb-POP)'은 발전, 송배전, 판매, 분산전원 등 전력산업 모든 분야에서 취득한 전력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등의 환경을 구축하여 표준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전력산업 분야의 주요 정보인 소비전력량, 발전량 등의 실시간 데이터, 발전소 설비관리, 송배전 감시진단, 고장정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야별로 묶어 응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추가될 때에도 플랫폼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갖춘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응용플랫폼의 하나인 '지능형 발전소 운영 응용플랫폼'은 기존 발전설비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터빈진동, 보일러 상태 등의 운전상황 감시와 데이터를 취

득하고, 이를 빅데이터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설비 상태를 진단하고 운영자에게 현장의 상황파악에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태추론 기반 예지형 자산관리 시스템'은 배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감시, 조사, 분석하는 기능을 넘어 빅데이터와 딥러닝 등으로 고장 및 수명예측, 원격 설비진단, 미래 예측형 자산관리 등이 가능한 전력망 상태의 추론 기능도 개발한다.

한전은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능이 구현된 R&D 통합 플랫폼을 외부 개발자들에게도 개방하여 전력분야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실증·표준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환익 사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미칠 잠재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전력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Industry 4.0 기반의 전력산업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어린이 건축가들, 꿈과 상상력으로 집 짓기 '뚝딱'

문화예술위원회 '건축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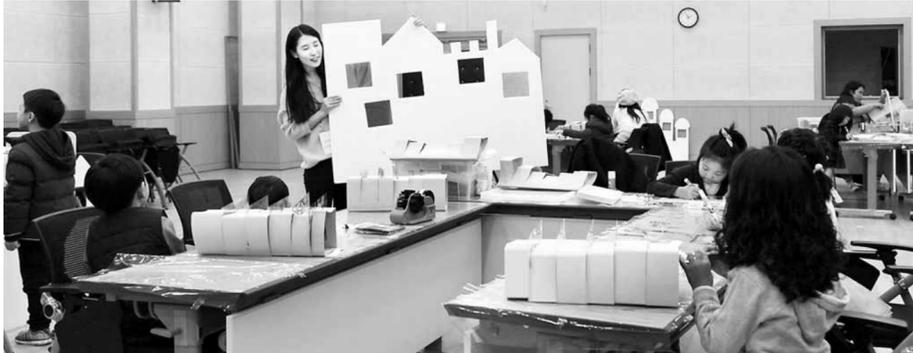
나주서 24명 '씨앗꿈' 과정 수료
문화 격차 해소 위해 확대 예정

"아이들이 문화예술위원회 등과 함께 한 '건축학교 씨앗꿈 과정'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 거예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립건축문화재단, K12건축학교가 공동 기획, 나주혁신도시 내 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건축학교'가 최근 수료식을 열었다. 프로그램에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두 시간 동안 미취학아동 24명이 참가했다. <사진>

어린이·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은 이 학교는 지난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문화예술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꾸준히 전개해 온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하나다.

올해 나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건축학교 '씨앗꿈 과정'은 그림책을 활용, 아이들의 건축적 상상력으로 공간을 재해석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7세 어린이 건축가들이 4~5명씩 한 조를 이루어 그림책 속 인물이



나 사진, 배경에 각자가 경험한 일상이나 특별했던 경험을 기억과 상상력을 더해 스케치한 다음 보드, 셀로판지, 색지, 수성강, 스티로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며 자신만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짜여졌다.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이용, 주인공과 같이 '내가 만약 괴물나라의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떤 놀이를 할까?'를 상상하며 아이들에게는 이야기 속 배경, 건축적으로는 '장소'라는 개념과 '괴

물이 이 정도의 크기라면 과연 나는 얼마큼 될까?' 하는 물음을 던지며 아이들 스스로 '크기'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조예진·예준(6) 쌍둥이 남매를 건축학교 수업에 같이 참가시킨 학부모 엄은아(여·37)씨는 "나주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없었는데 매우 좋은 기회였다. 아이들이 3주간 선생님을 따라 건축가가 되어 다양한 재료로 직접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했다"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요가 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앞

으로 건축학교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했던 어린이들도 수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앞다투 발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3주간 함께 수업을 도와주던 선생님들과 헤어지는 것에 아쉬워했다. 마지막 건축학교 '씨앗꿈 과정'에서 '어린이건축가'들은 수료증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세네갈 정부 정보보호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한국형 정보보호 모델을 공유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출범식에서 말릭 은자에 세네갈 우정통신부(MPT) 차관이 자국의 정보보호 지원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인터넷진흥원과 미래부는 현지시각으로 23일 안팎·이글루시큐리티 등 국

내 정보보호 전문기업과 함께 '한-세네갈 정보보호 전략 세미나'를 연다. 세네갈 정보보호 유관 기관에 기술정책 자문도 제공한다.

조운홍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4G망 구축을 앞둔 세네갈은 우리나라와 정보보호 협력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며 "이번 컨설팅이 세네갈 정부 발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무료 온라인 강의 13개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이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아카데미(edu.kocca.kr)가 콘텐츠 창의인재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온라인 과정을 선보인다.

신설된 강좌 ▲간단 정복! 에디우스(EDIUS) 영상 편집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도 알아보기 등 2개 정규 과정과 ▲파이널 컷 프로 X(Final Cut Pro X)를 통한 영상편집 입문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들려주는 콘텐츠 이야기 ▲콘텐츠 OSMU(One Source Multi Use) 확장전략 등 11개 열린 강좌를 포함해 총 13개 과정이다.

신규 온라인 과정에는 현업자의 실무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강좌가 대폭 늘었다.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들려주는 콘텐츠 이야기' 강좌에서는 뷰티 유투버인 '이사배'와 게임 유투버인 '도티'가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창작 방법론 MCN 수익 구조, 구독자 유치법 등 1인 미디어 제작의 모든 것을 전달할 예정이다.

모든 온라인 강의는 공식 홈페이지(edu.kocca.kr)와 모바일 앱 '콘텐츠아카데미'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신데렐라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수민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